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

Stressful Life Experience and Protective Factors of Resilient Children*

이용준(Yong-Jun Lee)¹⁾

박경자(Kyung-Ja Park)²⁾

ABSTRACT

Gender and intelligence of childre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were studied to investigate whether they functioned as protective factors for resilient children. Total of 556 children of 12 years of age were contacted for the study. Teachers were asked to rate the children's interpersonal competence. Children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on a checklist. Based on the competence scores and the experi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107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adaptive, resilient, and maladaptive group. IQ scores were assessed using an intelligence test for the 107 children. Mothers reported their parenting practices 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a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s, t-tests, and one-way ANOVA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data.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ir experi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between boys and girls. Girls were rated as being more competent by their teachers. There were more girls in the adaptive and the resilient group and more boys in the maladaptive group. Children in adaptive and the resilient group had higher intelligence scores than the maladaptive group. Mothers of resilient children replied as being warm and acceptive and more refusing and controlling than mothers of the adaptive children. Group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were not found. Thus, being a girl and having higher IQ scores were the protective factors for the resilient children.

Key Words : 탄력성(resilience), 역경 생활사건(adverse life event), 유능성(competence),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지능(intelligence), 어머니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 본 연구는 2004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ng-Jun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toliveistodie@hanmail.net

I. 서 론

탄력성(resilience)이란 위험 요소에 노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역경을 회복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생물학적 위험요소나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에 노출된 개인의 성공적인 적응을 의미하며, 발달 과정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영향을 적게 받거나 이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Luthar & Cicchetti, 2000).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의 대상이나, 용어의 정의 및 측정,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규정에 있어 서로 다른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지만,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거나 성취를 보였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완정, 2002; Luthar & Cicchetti, 2000).

이제까지 이루어진 탄력성 연구는 탄력성의 정의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 유형으로 정의하고 탄력적 아동과 비탄력적 아동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이다(Asendorpf & van Aken, 1999; Block & Kremen, 1996; Hart, Hofmann, Edelstein, & Keller, 1997;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Tugade, 2001). 다른 하나는 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탄력성의 발현을 돕거나 저해하는 보호요인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려는 연구이다(Garmezy, Masten, & Tellegen, 1984; 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9; Rutter, 1985).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자가 탄력성을 성격 유형이라는 입장에서 연구하였고, 용어에도 일치를 보이지 못하여, 극복력(김동희, 2003), 심리적 건강성(이완정, 2002), 유연성(서지영, 2002), 자아 탄력성(구형모·황순택, 2001), 탄력성(장휘숙, 2001), 회복력(김혜성, 1998) 등 다

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탄력성을 성격 유형으로 보는 입장의 연구는 자아 탄력성(ego-resilien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탄력성 연구는 시간에 따른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의 탄력성을 시간에 따른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들은 아동이 경험하는 역경 생활사건이 누적될수록 발달에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ameroff, Seifer, Baldwin과 Baldwin(1993)은 단일한 특정 역경 생활사건보다도 누적된 역경 생활사건이 아동의 발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eschke와 Patterson(2003)은 한 위험이 다른 위험을 낳아, 위험 노출의 사슬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탄력성 연구에서 위험요인은 빈곤(Horning & Gordon-Rouse, 2002), 입양(Jackson, Born, & Jacob, 1997), 비행가정(Kandel & Mednick, 1988), 우울(Holahan & Moos, 1991), 학대(Egeland, Carlson, & Sroufe, 1993) 등과 같은 단일 위험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Garmezy와 Masten(1994), Rutter(1985) 등은 역경 생활사건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발달을 유도하는 보호요인을 강조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은 일정한 경로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변인들의 패턴이나 경로를 연구하는 변인중심 분석 방법이라 칭하는데, 이 접근 방법은 회귀분석이나 잠재변인의

영향력을 밝혀내는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므로, 특정 변인들 사이의 영향력을 탐색하여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탄력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Masten 등, 1999).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변인들간의 상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비교하여 특징들을 밝혀내는 개인중심 분석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탄력성을 역동적 과정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이선경(1997), 김선희·김경연(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변인중심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개인중심 분석방법으로는 이완정(2002)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을 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탄력성 연구는 주로 아동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김동희, 2003; 김혜성, 1998; 오승아·이양희, 1999), 다양한 역경 생활사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요약하면, 국내에서 일반 아동에 대한 탄력성 연구는 변인 중심 분석방법으로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개인중심 분석방법으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 실증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Garmezy 등, 1984). 첫째로 아동 개인의 속성으로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동 스스로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아동이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아동의 성과 지능이 대표적인 변인으로 손꼽힌다. 여러 연구들이 아동의 성과 지능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Garmezy 등, 1984; Masten, Garmezy, Tellegen, Pellegrini, Larkin, & Larsen, 1988; Tiet, Bird, Davies, Hoven, Cohen, Jensen, & Goodman, 1998; Tiet, Bird, Hoven, Wu, Moore, & Davies, 2001). 아동의 성과 관련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능하여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며, 학교에서의 학업 능력도 뛰어나고, 교우관계에서도 갈등이 적어, 남아보다 여아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탄력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Dixon, 2002; Honig & Wang, 1997; Masten 등, 1988). 그러나 Werner(1984)는 출생에서 10세 정도까지는 여아가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덜 받지만, 그 이후에는 남아의 문제가 감소되고 여아의 문제가 증가하면 이러한 경향은 역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iet와 동료들(1998, 2001)은 아동의 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아동의 성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연구 모두 국외의 연구 결과들이므로 아동의 성이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지능은 아동이 자신의 환경에서 위험을 지각하거나 경험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선행학습과 가치, 판단 등에 기초하여 대처 반응을 결정하고, 아동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여 적응과 조절을 이루어 내는 바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 보고되었다(Egeland 등, 1993; Garmezy 등, 1984; Masten 등, 1988, 1999; Tiet 등, 1998, 2001). 높은 지적 능력은 위험한 역경 생활사건에서 보다 나은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러한 지적 능력의 유무는 위험한 상황에서 적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이상적인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Luthar(1991)의 연구는

지능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지능도 경험적 연구들에 따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와 온정적인 관심, 안정적인 가정 등 빈곤을 뛰어넘어 아동이 잘 극복하도록 만드는 가정 내 요인들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였다. Werner와 Smith(1982)가 1955년부터 수행했던 미국 Hawaii 주의 Kauai 아동 종단연구에서는 빈곤,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탄력적 아동의 부모들은 문제 아동의 부모보다 좀 더 이해심이 많으며, 지지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Masten과 동료들(1999)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양육방식이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아동의 적응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과 관련된 요인인 양육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족 외적인 사회적 지지로서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접촉, 사회 단체의 가입 및 활동,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외체계적 변인은 고려하지 않고 아동 개인의 속성과 가족 내적인 변인들만 고려하고자 한다. 그 이외에도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성적, 부모의 유능성 등을 비롯한 여러 변인들이 보호요인으로서 거론되었지만 (Carver, 1998; Howard, Dryden, & Johnson, 1999),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들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탄력성 연구에서 위험요인은 단일 위험요인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분석방법은 변인중심 분석방법이 주를 이루었다(김선희·김경연, 2001; 이선경, 1997; Grossman, Beinashowitz, Anderson, Sakurai, Finin, & Flsherty, 1992; O'donnell, Schwab-Stone, & Muyeed, 2002).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이 아닌 발달의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단일 위험 요인보다 축적된 위험인 역경 생활사건들로 초점을 확장하여, 역경 생활사건의 경험과 유능성에 따라 탄력성의 특성을 갖는 집단을 분류하여 개인중심 분석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의 역경 생활사건 경험의 분포와 유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는 탄력적 집단과 적응 및 부적응 집단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두 단계에 걸쳐 선정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집단의 선정에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을 임의로 선정한 후, 두 초등학교에서 각각 6학년 6개 학급과 7개 학급, 총 13개 학급의 아동 556명(남

아 298명, 여아 258명)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1차로 선정된 아동에게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들이 경험한 역경 생활사건 경험의 빈도를 측정하고, 교사에게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 평정을 의뢰하였다.

1차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의 역경 생활사건 경험과 대인간 유능성 자료를 근거로, Luthar와 동료들(1993, 1999), Masten과 동료들(1988, 1999) 등이 제안한 방법대로 역경 생활사건을 2개 이상 경험하였는지와, 대인간 유능성 점수가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상 또는 이하인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적 집단, 적응 집단, 부적응 집단 및 문제 집단의 네 가지 집단으로 아동을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탄력적 집단”은 역경 생활사건 척도에서 역경 생활 사건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하여(빈도 ≥ 2) 역경 노출 집단으로 분류되고, 대인간 유능성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들로서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집단을 의미한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부적응 집단”은 역시 역경 생활사건 척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경 생활 사건에 체크하고(빈도 ≥ 2), 대인간 유능성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들로서 위협에 노출된 영향으로 잘 적응하지 못한 집단이다. 또 다른 비교집단인 “적응 집단”은 역경 생활사건 척도에서 한 가지 이하의 역경 생활 사건에 체크하고(빈도=0, 1), 대인간 유능성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들로서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집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집단”은 역시 역경 생활사건 척도에서 한 가지 이하의 역경 생활 사건

에 체크하여(빈도=0, 1) 역경에 노출되지 않고, 대인간 유능성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아동들로서, 이 집단은 위협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병리적인 증세를 가진 집단에서 유효하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력적 집단은 44명(33.1%), 부적응 집단은 46명(34.6%), 적응 집단은 43명(32.3%)으로 총 133명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선정된 세 집단인 탄력적 집단, 부적응 집단 및 적응 집단에 속한 총 133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중,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어느 한쪽 자료라도 빠진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탄력적 집단 38명(35.5%), 부적응 집단 33명(30.8%), 적응 집단 36명(33.7%)으로 총 107명(남아 54명, 여아 53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최종 대상을 집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탄력성 집단에 따른 연구대상 수 (N=107)

구	분	역경 생활사건 경험	
		두 개 이상 (빈도 ≥ 2)	한 개 이하 (빈도=0,1)
유 능 성	상 M+1 SD 이상 (4.85+0.92=5.77)	탄력적 집단 38(35.5%)	적응 집단 36(33.7%)
	하 M-1 SD 이하 (4.85-0.92=3.93)	부적응 집단 33(30.8%)	문제 집단 (연구 대상에서 제외)

2. 연구 도구

1)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airns, Leung, Gest와 Cairns(1995)가 개발한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ICS)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사가 아동의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교사 평정 도구로, 원도구는 학업 유능성, 공격성, 인기도, 친근감, 내면화, 신체적 매력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Cairns와 동료들(1995)은 내면화 요인이 대인간 유능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의 총 13개 문항으로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부터 7점을 갖는 7점 평정 척도로서,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 점수는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대인간 유능성의 13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93이며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는 .76~.93이다.

2) 아동의 역경 생활사건

아동이 경험한 다양한 역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Tiet, Bird, Davies, Hoven, Cohen, Jensen과 Goodman(1998)의 역경 생활사건(Adverse Life Events) 체크리스트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통제하기 어려웠을 25개의 사건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사건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3) 지능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행동과학연구소(2000)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5·6학년용 지능검사(KIT-P)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지각력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검사는 평균 50, 표준편차가 10이 되는 T점수를 사용하였고, 소검사별 환산 점수의 합계와 편차를 이용하여 평균 100, 표

준편차 16으로 하는 IQ규준을 사용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개발한 80문항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4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하기에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하위 영역인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행동의 세 가지 행동별로 간편형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간편형 제작 과정은 박영애(1995)가 제시한 요인부하량을 참고로, 하위 영역별로 해당 문항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문항 중에서 유사한 문항이라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하였다. 추출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어머니 3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원문항과 간편형 문항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원척도와 간편형 척도의 요인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온정·수용 요인은 .96($p<.001$), 거부·제재 요인은 .93($p<.001$), 허용·방임 요인은 .97($p<.001$)로 두 척도간에 높은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각 문항은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수는 온정·수용 18문항, 거부·제재 15문항, 허용·방임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별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살펴보면, 온정·수용 요인은 18~72점, 거부·제재 요인은 15~60점, 허용·방임 요인은 10~30점으로,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는 온정·수용 요인이 .92, 거부·제재 요인이 .89, 허용·

방임 요인이 .76으로 나타났다.

5)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을 근거로 평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을 점수화(1점=초졸, 2점=중졸, 3점=고졸, 4점=전문대졸, 5점=대졸, 6점=대학원 이상)하고, 부모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점수화(0점=무직, 1점=단순노무자, 2점=피고용 기능인, 3점=자영업자, 4점=사무/기술직, 5점=관리직, 6점=전문직)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는 이숙(1988)이 사용한 방법과 같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아버지의 직업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점수와 아버지의 직업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직업점수 합산시 어머니의 직업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의 경우 비경제 활동 인구 범주에 속하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교사용 대인간 유능성 척도와 아동용 역경 생활사건 척도의 의미전달 및 이해와 표기방법의 혼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간 편형을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어머니, 교사 및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2004년 3월 2일~6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참고로 척도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 본

조사(2004년 3월 25일~31일)는 556명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 상·하 집단과 역경 노출 정도를 근거로 연구 대상이 되는 탄력성 집단, 적응 및 부적응 집단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용 대인간 유능성 척도는 각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유의점을 주지시키고 일주일 간 평정하였고, 아동용 역경 생활사건 척도는 담임교사 13명에게 실시요령과 부연 설명할 사항을 전달한 후 학급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담임 교사를 통해 전원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2차 본 조사(2004년 4월 1일~9일)는 탄력성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분류된 세 집단의 아동 133명과 그들의 어머니 1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담임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였다. 아동 대상으로는 학과 수업 외 시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집단으로 지능검사(KIT-P)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양육행동이 나 지능검사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10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의 역경 생활사건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분포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대인간 유능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탄력적 집단과 적응 및 부적응 집단의 아동 분포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탄력적 집단과 비교집단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지능, 어머니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역경 생활사건과 대인간 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107명 아동이 경험한 역경 생활사건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들은 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37.4%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가족의 이사(36.4%), 전학(28.0%), 범죄나 사고 목격(25.2%), 본인의 질병 혹은 상해(23.4%) 순으로 역경 생활을 경험하였다. 이와 반대로 범죄, 폭력, 구타의 피해자, 부모님 별거, 부모님의 법적 문제, 계모나 계부가 생김, 새로운 형제·자매 생김과 같은 사건은 전체 집단의 2%이내의 아동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원의 체포, 절친한 친구의 사망, 형제·자매의 가출 혹은 출가, 부모님 이혼, 부모님의 감옥 수감과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본 연구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던 556명의 역경 생활사건 노출 빈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분포를 통해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역경생활사건을 주로 경험하였고, 심각한 가족 문제와 같은 사건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라 역경생활사건 경험을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비슷하게 노출되었으며, 남, 여 모두 5명 이상 경험하였다고 보고된 문항 4, 20, 19, 3, 8, 5번에 대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분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df=5)=2.96, n.s.$). 연구 대상 아동들이 경험한 역경 생활사건의 빈도는 다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사가 평정한 1차 조사대상 아동 556명에 대한 대인간 유능성 평균은 4.85로서 이 척도가 7점 만점의 척도임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 107명의 대인간 유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간 유능성 전체 평균은 5.31점이며, 하위요인인 학업 유능성은 5.58, 인기는 5.10, 친근감은 5.75, 신체적 매력은 4.67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면에 공격성은 2.56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에 따른 아

<표 2> 역경 생활사건 문항의 빈도(%)

역경 생활사건 문항 내용	남 아 (n=54)		여 아 (n=53)		전 체 (N=107)	
	빈 도	(%)	빈 도	(%)	빈 도	(%)
4. 친한 친구와 헤어졌다.	17	(31.5)	23	(43.4)	40	(37.4)
20. 가족이 이사했다.	23	(42.6)	16	(30.2)	39	(36.4)
19. 새 학교로 전학을 갔다.	16	(29.6)	14	(26.4)	30	(28.0)
3. 범죄/사고를 보았다.	16	(29.6)	11	(20.8)	27	(25.2)
8. 내가 몹시 아프거나 다쳤었다.	13	(24.1)	12	(22.6)	25	(23.4)
5. 친한 친구가 몹시 아팠거나 다쳤다.	9	(16.7)	10	(18.9)	19	(17.8)

($\chi^2(df=5)=2.96, n.s.$)

<표 3>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차

구 분	남아	여아	전체	t
	(n=54) M(SD)	(n=53) M(SD)	(N=107) M(SD)	
유 능 성				
학업 유능성	5.04(1.77)	6.14(1.03)	5.58(1.55)	-3.95***
공격성 ^a	3.38(1.85)	1.73(0.88)	2.56(1.66)	-5.91***
인기도	4.65(2.07)	5.55(1.31)	5.10(1.79)	-2.71**
친근감	5.36(1.61)	6.15(1.44)	5.75(1.57)	-2.67**
신체적 매력	4.45(1.71)	4.89(1.19)	4.67(1.49)	-1.55
총 점	4.82(1.49)	5.80(0.94)	5.31(1.34)	-4.06***

^a대인간 유능성 총점 합산시 역채점 함.

** $p < .01$ *** $p < .001$

동의 대인간 유능성의 점수는 남아가 4.82점, 여아가 5.80점으로 t-검증 결과,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아는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교사로부터 평가되었다($t_{105} = -4.06, p < .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업 유능성(남아 5.04점, 여아 6.14점), 인기도(남아 4.65점, 여아 5.55점), 친근감(남아 5.36점, 여아 6.15점)은 여아의 점수가 높았고, 공격성은 남아가 3.38점, 여아가 1.73점으로 남아가 높았으며, 신체적 매력은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 탄력성의 보호요인

1) 아동의 성

연구 집단별 아동의 분포를 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부적응 집단에는 남아가 26명(78.8%), 여아가 7명(21.2%)이었고, 적응 집단에는 남아가 14명(38.9%), 여아가 22명(61.1%), 그리고 탄력적 집단에는 남아가 14명(36.8%), 여아가 24명(63.2%)이었다. 집단별 성별 분포에 대한 χ^2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에 따른 탄력적 집단과 비교집단의 빈도(%)

구 분	성 별		전 체 N(%)
	남 n(%)	여 n(%)	
적응 집단	14(38.9)	22(61.1)	36(100.0)
탄력적 집단	14(36.8)	24(63.2)	38(100.0)
부적응 집단	26(78.8)	7(21.2)	33(100.0)
전 체	54(50.5)	53(49.5)	107(100.0)

($\chi^2(df=2) = 15.34, p < .001$).

($\chi^2(df=2) = 15.34, p < .001$). 즉, 탄력적 집단과 적응 집단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반면, 부적응 집단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다. 성에 따른 집단별 빈도는 다음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지능

아동의 지능이 탄력성 정의에 따른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 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지능 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 집단의 전체 지능지수 평균이 113.03으로서 표준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검사별로 T점수를 살펴보면 추리력이 59.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어휘력이 56.84점이었으며, 지각력 55.10점, 수리력 54.0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은 이해력이 중요한 요인인 논리적 사고 및 분석 능력을 대표하는 추리력이 다른 능력보다 약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지능이 탄력적 집단과 비교집단들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능은 탄력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적응 집단, 부적응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2,104} = 4.07, p < .05$). 이와 같은 지능의 차이가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알

<표 5> 집단별 아동의 지능 점수 평균과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집단구분
어휘력	부적응 집단	33	53.42	10.36	5.72**	a
	적응 집단	36	58.22	9.20		b
	탄력적 집단	38	59.37	7.85		b
추리력	부적응 집단	33	56.30	11.81	3.82*	a
	적응 집단	36	59.67	9.32		a b
	탄력적 집단	38	62.87	8.80		b
수리력	부적응 집단	33	52.27	10.24	.68	
	적응 집단	36	54.89	10.45		
	탄력적 집단	38	54.76	10.57		
지각력	부적응 집단	33	51.48	13.77	2.65	
	적응 집단	36	56.33	10.19		
	탄력적 집단	38	57.08	8.67		
IQ 총점	부적응 집단	33	106.33	19.63	4.07*	a
	적응 집단	36	114.72	16.25		b
	탄력적 집단	38	117.24	13.99		b

* $p < .05$ ** $p < .01$

아보기 위해서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탄력적 집단과 적응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이 두 집단의 지능이 부적응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탄력적 집단의 지능이 가장 높았고 부적응 집단의 지능이 가장 낮았다.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영역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탄력적 집단의 어휘력과 추리력 모두 부적응 집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았고, 적응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별로 아동의 지능점수의 평균 및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3)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탄력성 정의에 따른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평균을

살펴보면, 온정·수용적 태도가 4점 척도에서 3.31로 가장 높았고, 거부·제재적 태도가 2.30, 그리고 허용·방임적 태도가 1.87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탄력적 집단과 비교집단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 태도와 거부·제재적 태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온정·수용적 태도는 적응 집단 어머니 평균이 3.44점으로 가장 높았고, 탄력적 집단은 3.29점, 부적응 집단은 3.2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2,104}=3.01, p<.05$). Duncan 사후검증 결과 적응 집단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태도는 부적응 집단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태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탄력적 집단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태도는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다.

거부·제재적 태도는 탄력적 집단 어머니 평균이 2.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적응 집단은 2.33점, 적응 집단은 2.1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2,104}=4.41, p<.05$). Duncan 사후 검증 결과 탄력적 집단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태도는 적응 집단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태도보다 높게 나타나며, 부적응 집단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태도와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태도는 세 집단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집단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태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력적 집단 아동의 어머니들은 다른 집단 아동의 어머니들과 다른 양육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거부·제재적 태도만 적응 집단 아동

<표 6> 집단별 어머니 양육행동의 평균과 차이 검증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집단구분
온정·수용	부적응 집단	33	3.20	.48	3.01*	a
	적응 집단	36	3.44	.35		b
	탄력적 집단	38	3.29	.43		a b
거부·제재	부적응 집단	33	2.33	.42	4.41*	a b
	적응 집단	36	2.11	.53		a
	탄력적 집단	38	2.45	.52		b
허용·방임	부적응 집단	33	1.83	.33	2.03	
	적응 집단	36	1.80	.41		
	탄력적 집단	38	1.97	.41		

* $p < .05$

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집단별 어머니 양육행동의 평균과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4)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탄력성 정의에 따른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63명(60.0%), 아버지의 경우 51명(48.1%)이 대학교 졸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경우 15명(14.3%)이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아버지의 경우 36명(34.0%)이 대학원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66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기술직(17명, 16.2%), 자영업(11명, 10.5%), 피고용 기능인(5명, 4.8%), 전문직(4명, 3.8%) 순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이 39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기술직(33명, 31.1%), 자영업(17명, 16.0%), 전문직(14명 13.2%)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앞의 연구 도구에

<표 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의 집단별 평균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부적응 집단	33	13.56	2.97	5	18	1.32
적응 집단	36	14.49	1.99	10	17	
탄력적 집단	38	14.35	2.50	8	18	

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화 한 결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최소 5점부터 최대 18점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14.15점(표준편차 2.51점)으로서 점수의 범위를 고려할 때 높은 편에 속하여 연구 대상의 가정이 중·상류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탄력적 집단과 비교집단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집단별 점수는 부적응 집단은 최소 5점부터 최대 18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3.56점이었고, 적응 집단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17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4.49점이었으며, 탄력적 집단은 최소 8점부터 최대 18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4.35점이었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집단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부적응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최소값이 더 낮아,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집단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역경 생활사건과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아동의 성, 지능, 어머니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

인이 초등학교 아동에게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역경 생활사건의 경험은 가족의 이사, 친한 친구와의 이별, 전학과 같이 아동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주를 이루었고,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문제나 상호작용 문제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의 이혼, 재혼, 법적 문제와 같은 가족의 심각한 문제는 많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아동이 두 개 이상의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Tiet와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는 가족원의 상해 혹은 사망, 친한 친구와의 이별,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사건의 주를 이루었고, 부모의 이혼, 재혼, 법적 문제와 같은 사건은 많은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Coddington(1972)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주로 경험한 사건은 전학, 부모의 경제적 문제나 상호작용 문제와 같은 것이었으며, 부모의 이혼, 재혼, 법적 문제는 적은 빈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국내·외에서 십대 아동의 역경 생활사건 경험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볼 때, 학령기 아동은 부모나 친구와 관련된 사건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법적인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아동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소수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은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으며, 신체적 매력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가 인지·사회적 측면에서 남아보다 성숙하며, 남아가 공격적 측면에서 여아보다 우세한 것으로서 이는 서재연(1999)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적 집단 분포와 비교집단의 분포가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탄력적 집단과 적응 집단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분포되었으며, 부적응 집단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분포되었다. 집단별 정의를 통해 탄력적 집단과 적응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잘 적응하는 아동들이지만 탄력적 집단의 아동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적응 집단의 아동들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이다. 이 두 집단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다는 것은 여아가 위협요인에 따른 영향을 남아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이 여아에게는 탄력성을 부각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고, 남아에게는 취약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Dixon, 2002; Honig & Wang, 1997; Masten 등, 1988), 아동의 성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김선희·김경연(2001), 이완정(2002), Masten과 동료들(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탄력성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능이 집단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탄력적 집단의 지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적응 집단의 지능과는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고, 부적응 집단의 지능은 낮게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한 집단차의 결과를 통하여 역경과 지능이 아동의 대인간 유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한 집단은 탄력적 집단과 부적응 집단이었다.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했을 지라도 탄력적 집단은 부적응 집단보다 높은 지능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볼 때,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지능이 아동의 적응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Egeland와 동료들(1993), Garmezzy와 동

료들(1984), Luthar(1991), Masten과 동료들(1988, 1999), Tiet와 동료들(1998,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geland와 동료들(1993)은 위험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 18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잘 기능하는 높은 지능과 발달된 언어능력을 지닌 탄력적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적 집단의 지능이 부적응 집단의 지능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 역경 생활사건이 축적될수록 지능이 낮은 아동들은 낮은 유능성 점수를 보이고, 지능이 높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능성 점수를 보여, 지능이 아동의 적응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Luthar(1991)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지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능이 보호요인으로서 효과를 보이지 않아 부적응 행동이 나타났다. 이 연구와 본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은 연구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Luthar(1991)의 연구대상은 미국 대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의 아동이었던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중·상류 계층 아동들이다. 선행연구(Masten 등, 1988, 1999)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능의 정적 상관의 유의미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지능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대상이었던 Luthar(1991)의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스트레스가 상호작용 하여 위험요인을 축적시켰고, 그 결과 지능이 다른 연구와는 달리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다고 고려해 볼 수 있다. Garnezy와 동료들(1984), Masten과 동료들(1988, 1999) 등의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

는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게 높은 지능이 보호요인으로서 작용되고 있음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높은 지능을 가진 아동이 자신의 정신 도식으로 경험을 통합하여 역경 생활사건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험 상황에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utter, 1990). 이와 유사하게, 높은 지능을 가진 아동들은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의 대안책을 보다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탄력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또 다른 주요변인으로 집단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탄력적 집단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은 하위변인인 인정·수용적 태도와 허용·방임적 태도에서는 다른 집단 아동의 어머니와 차이가 없었고, 거부·제재적 태도는 적응 집단 아동의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정·수용적 태도는 적응 집단 아동의 어머니만이 부적응 집단 아동의 어머니보다 높은 태도를 나타냈다. Masten과 동료들(1999) 역시 양육행동의 집단간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탄력적 집단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적응 집단의 어머니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 역시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적 측면에서, 각 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탄력적 집단 아동은 역경 생활사건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거나 하나만 경험한 적응 집단보다 많은 두 개 이상의 축적적인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한 아동으로서 어머니에게 스트레스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불만, 감정적 혼욕, 잔소리와 같은 행동이 두드러진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탄력성에 있어서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아동들이 경험한 역경 생활사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이사, 절친한 친구와 이별, 전학, 범죄나 사고 목격, 본인의 질병 혹은 상해 등과 같은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역경 생활사건들은 가족 환경보다는 학교를 비롯한 아동 주변의 사회적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부모의 경제적 문제, 불화, 음주문제나 가족원 사망 등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좀 더 많이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행동을 연구한다면, 양육행동이 보호요인이나 취약요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탐색하여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탄력적 집단과 비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관적으로 위험노출을 중재하는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김선희·김경연(1999), Dumaret(1985), Garmez와 동료들(1984), Luthar(1991), Sameroff와 동료들(1987)의 연구와 본 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 가정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Masten과 동료들(1999)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경 생활사건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은 역경 생활사건의 정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은 보다 높은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본 연구 대상의 가정과 함께 생각해 보면, 본 연구 대상의 가정은 대부분이 중·상류층에 속한 가정이며, 아동들은 대부분 심각한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한 아동이 아니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탄력성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위험노출 유무를 위해 측정된 역경 생활사건은 다양한 편이었으나 각 사건마다의 경중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단일사건이라도 그 정도의 크기가 다를 것이며, 그 영향이 지속적인 경우도 있고, 단기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경 생활사건이 아동의 자기 보고이므로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측정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인간 유능성은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는데, 평정된 시기에 따른 대인간 유능성의 신뢰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교사의 대인간 유능성 평정은 교사가 해당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평정 시기가 학년이 바뀐 지 불과 4주 정도가 지난 학년초의 시점에서 평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에 대해 정확하게 평정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탄력성 연구는 안정성 여부를 탐색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Tarter와 Vanyukov(1999)는 탄력성이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탄력성은 극심한 위험 노출 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탄력적인 아동도 다른 시점에서는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를 검증해보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에 대다수를 차지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이루어져 왔던 변인 중심의 과정 탐

색이 아니라 집단간 분석방법의 연구 틀을 도입하여, 역경 생활사건의 축적된 경험과 대인간 유능성에 따른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하는 변인들을 실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다. 또한, Robinson(2000)이 지적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는 폐해의 예방이 중점이었던 것에 비해 탄력성 연구를 통한 긍정적 결과에 관심을 전환할 수 있어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을 집단별로 특성을 이해하여 위험의 노출을 예방하고 중재하며,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적응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문제가 되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문제의 발생률이나 지속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구형모 · 황순택(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2), 345-358.
- 김동희(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 ·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선희 · 김경연(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한국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혜성(1998).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03-413.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재연(1999). 유능감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자기 지각과 타인 지각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아 · 이양희(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3(1), 1-16.
-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113-127.
- 한국행동과학연구소(2000). KIT-P 지능검사. 서울 : 한국가이던스.
-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7.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1999).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prototypes in childhood : Replicability, predictive power, and the trait-type iss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815-832.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airns, R. B., Leung, M., Gest, S. D., & Cairns, B. D.(1995). A brief method for assessing social development : Structure, reliability, stability, and developmental validity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Behavior Research Theory*, 33(6),

- 725-736.
- Carver, C. S.(1998). Resilience and thriving : Issues, models and linkag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2), 245-266.
- Coddington, R. D.(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II : A study of a normal pop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205-213.
- Dixon, S. J.(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ses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umaret, A.(1985). IQ, scholastic performance and behaviour of sibs raised in contrasting environm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4), 553-580.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Garnezy, N., & Masten, A. S.(1994). Chronic adversities. In M. Rutter, L. Herson, & E. Taylor(3rd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pp. 191-208). Oxford :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 Garnezy, N., Masten, A. S., & Tellegen, A.(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1), 97-111.
- Grossman, F. K., Beinashowitz, J., Anderson, L., Sakurai, M., Finnin, L., & Flsherty, M.(1992). Risk and resilience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5), 529-550.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95-205.
- Holahan, C. J., & Moos, R. H.(1991).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 A 4-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31-38.
- Honig, A. S., & Wang, Y.(1997). Child resilience in Taiwanese immigrant families as a function of maternal supports and maternal employ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9, 43-48.
- Horning, L. E., & Gordon-Rouse, K. A.(2002). Resilience in preschoolers and toddlers from low-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3), 155-159.
- Howard, S., Dryden, J., & Johnson, B.(1999). Childhood resilience : Review and critique of literature. *Oxford Review of Education*, 25(3), 307-323.
- Jackson, S., Born, M., & Jacob, M.(1997). Reflections on risk and resili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0(6), 609-616.
- Kandel, E., & Mednick, S. A.(1988). IQ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bjects at high risk for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2), 224-226.
- Luthar, S. S.(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Luthar, S. S., & Cicchetti, D.(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Luthar, S. S., & Cushing, G.(1999). Measurement issues in the empirical study of resilience. In M. D. Glantz & J. R.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 Positive life adaptations*(pp. 129-160). NY : Plenum.
- Luthar, S. S., Doernberger, C. H., & Zigler, E.(1993). Resilience is not a unidimensional construct : Insigh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inner-city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03-717.
- Masten, A. S., Garnezy, N., Tellegen, A., Pellegrini, D. S., Larkin, K., & Larsen, A.(1988). Competence

- and stress in school children :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and family qua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9(6), 745-764.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43-169.
- Meschke, L. L., & Patterson, J. M.(2003). Resilience as a theoretical basi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3(4), 483-514.
- O'Donnell, D. A., Schwab - Stone, M. E., & Muyeed, A. Z.(2002). Multidimensional resilience in urban children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Child Development*, 73(4), 1265-1282.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Robinson, J. L.(2000). Are ther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research from studies of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1(3), 570-572.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eroff, A. J., Seifer, R., Baldwin, A., & Baldwin, C.(1993). Stability of intelligence from preschool to adolescence : The influence of social and family risk factors. *Child Development*, 64(1), 80-97.
- Sameroff, A. J., Seifer, R., Barocas, R., Zax, M., & Greenspan, S.(1987). Intelligence quotient scores of 4-year-old children : Social-environmental risk factors. *Pediatrics*, 79(3), 343-350.
- Tarter, R. E., & Vanyukov, M. (1999). Revisiting the validity of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n M. D. Glantz & J. R.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 Positive life adaptations*(pp. 85-100). NY : Plenum.
- Tiet, Q. Q., Bird, H. R., Davies, M. Hoven, C., Cohen, P., Jensen, P. S. & Goodman, S.(1998). Adverse life events and resil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11), 1191-1200.
- Tiet, Q. Q., Bird, H. R., Hoven, G. W., Wu, P., Moore, R., & Davies, M.(2001). Resilience in the face of maternal psychopathology and adverse life ev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3), 347-365.
- Tugade, M. M.(2001). *Positive emotions and resilience : Exploring subjective, cognitive, and physiological consequ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Werner, E. E.(1984). Resilient children. *Young Children*, 39, 68-72.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30일 채택